

중동정세 불안 Dubai유 31.36달러

석유공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고조 ... WTI도 37.62달러로 상승

미국의 비축유 확대 방침과 중동 정세의 불안감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23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08달러 상승한 배럴당 31.36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7.62달러로 0.39달러 올랐다.

북해산 Brent유는 0.72달러 급등한 34.26달러로 다시 34달러 선을 회복했다.

뉴욕선물시장(NYMEX)의 5월물 WTI와 런던선물시장(IPE)의 Brent유는 0.40달러, 0.51달러 각각 오른 37.45달러, 33.31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전략비축유(SPR)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마스 창시자의 사망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Sunoco의 미국 호클라호마주 Tulsa 정유공장 화재 소식도 미국 휘발유 가격상승을 유발하며 국제유가 상승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나 화재는 소규모로 곧 진압돼 대부분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5>